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환경 불평등은 환경적 위험과 혜택이 사회 내 특정 집단에게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현상으로, 인종, 계층, 국가, 세대 간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중첩되어 나타난다. 대규모 환경 재난 상황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2005년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환경 불평등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당시 피해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인종적, 계층적 불평등 구조를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었다. 특히 뉴올리언스시에서는 흑인과 저소득층이 집중된 지역이 시 예산 부족으로 홍수 방지 시설이 미비해 더 큰 피해를 입었으며, 재난 이후 복구 과정에서도 백인 및 중산층이 지원을 더 많이 받은 반면, 흑인 및 저소득층은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환경 불평등에 대응하여 등장한 환경 정의 개념은 점차 확장되어 왔다. 초기에는 환경 위험의 공정한 분배를 의미하는 분배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환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한 참여를 강조하는 절차적 정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인식 정의로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국가 간 그리고 세대 간 정의 문제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과학철학자 브뤼노 라투르는 이러한 환경 위기 속에서 새로운 윤리적, 정치적 주체로서 지구생활자 개념을 제시했다. 라투르에 따르면 지구생활자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 즉 원주민, 저소득층, 기후 난민, 청년 세대 등을 지칭하며, 이들은 인종, 국경, 계층의 분할을 넘어 하나의 지구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연대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투르는 21세기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환경 파괴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절박한 인식이 실천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투르는 현대 사회를 발전주의적 세계관을 견지하는 근대인들과 파괴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지구생활자 사이의 대립 구도로 파악했다. 그는 생태 파괴를 쉽게 타개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지금이 곧 종말적 사태라는 절박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해방적 파괴국 개념과 연결된다. 벡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위협이 새로운 인식과 성찰을 촉발하는 해방적 파괴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벡에 따르면 파괴국은 기존 규범을 위반하면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충격이 새로운 인식과 성찰을 촉발하는 정확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정확 작용이란 파괴의 충격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기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실제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환경 보호와 인종 차별이라는 별

개의 담론이 결합되면서, 홍수 위험을 환경적 불평등의 문제로 재규정하게 된 것이 그 예이다.

지구생활자 연대를 통한 환경 정의 실현 방안으로는 기후 소송, 풀뿌리 환경 운동, 국제적 환경 캠페인 등이 있다. 이러한 연대는 현재 취약계층뿐 아니라 미래세대, 나아가 생태계와 동식물 같은 비인간 존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이다. 라투르가 지적했듯이, 환경 파괴에 대한 정치적 의식의 진보와 실천이 파괴의 진행 속도보다 빨라져야 하며, 이것이 환경 정의 실현의 핵심 과제이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경 불평등은 환경적 위험과 혜택이 사회 내에서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현상이다.
- ②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복구 과정에서도 인종적, 계층적 불평등이 지속되었다.
- ③ 환경 정의 개념은 분배적 정의에서 시작하여 절차적 정의, 인식 정의로 확장되었다.
- ④ 라투르는 발전주의적 세계관과 지구생활자 개념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 ⑤ 벡은 환경 파괴가 새로운 인식과 성찰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 '지구생활자' 개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진국 국민들을 지칭한다.
- ② 인종, 국경, 계층의 분할을 강화하여 환경 정의를 추구하는 주체이다.
- ③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정부와 국제기구를 의미한다.
- ④ 환경 파괴에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이 지구라는 공통 기반에서 연대하는 존재이다.
- ⑤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 보호보다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아는 것은?

—<보 기>—

울리히 벡은 기후변화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해방적 파국'으로 해석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사회적 삶을 심대하게 변화시킬 파국적 사태임을 인정하면서도, 파국이 반드시 종말일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변화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벡에 따르면 파국은 기존의 규범을 위반하면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충격이 다시 새로운 인식과 성찰을 촉발하는 '정확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국이 내포하고 있는 비관적 성격을 해방의 낙관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① 벡은 라투르와 달리 환경 파국의 낙관적 가능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② 벡과 라투르는 모두 환경 위기를 사회적 변화의 계기로 인식한다.
 ③ 벡의 '정확 작용' 개념은 환경 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설명한다.
 ④ 벡과 라투르는 모두 환경 재난이 사회적 불평등과 별개의 현상이라고 본다.
 ⑤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는 벡이 말한 '정확 작용'의 예로 볼 수 있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미르 씨는 서아프리카의 한 저개발국가 출신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기후 난민이 되었다. 그는 유럽 국가로 이주하려 했으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세계적으로 가뭄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진국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피해는 사미르 씨와 같은 저개발국가 주민들이 주로 겪고 있다. 최근 일부 기후 난민들은 국제 환경단체의 지원을 받아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과 국가들을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 ① 사미르 씨의 사례는 국제적 환경 불평등 문제로, 지구생활자 연대보다 개별 국가의 대응이 더 효과적이다.
 ② 기후 난민 문제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만 다룰 수 있으며, 절차적·인식적 정의와는 관련이 없다.
 ③ 기후 소송은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대응으로, 지구 생활자들이 연대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④ 사미르 씨와 같은 기후 난민은 라투르가 말한 '근대인들'에 해당하므로 지구생활자 개념과는 무관하다.
 ⑤ 기후 난민 문제는 국제적 차원의 환경 정의와 관련되지만, 세대 간 환경 정의 문제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해설] 이 문항은 지문의 사실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윗글 여섯 번째 문단에서 라투르는 현대 사회를 '발전주의적 세계관을 견지하는 근대인들'과 '파국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지구생활자' 사이의 대립 구도로 파악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라투르는 두 개념이 상호보완적이지 아니라 대립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며, "생태 파국을 쉽게 타개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지금이 곧 종말적 사태라는 절박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① 윗글 첫 문단에서 "환경 불평등은 환경적 위험과 혜택이 사회 내 특정 집단에게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윗글 두 번째 문단에서 "재난 이후 복구 과정에서도 백인 및 중산층이 지원을 더 많이 받은 반면, 흑인 및 저소득층은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윗글 세 번째 문단에서 환경 정의 개념이 "초기에는 환경 위험의 공정한 분배를 의미하는 '분배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환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한 참여를 강조하는 '절차적 정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인식 정의'로 확장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윗글 여섯 번째 문단에서 "백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위협이 새로운 인식과 성찰을 촉발하는 '해방적 파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2. 정답: ④

[해설] 이 문항은 핵심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윗글 네 번째 문단에서 라투르에 따르면 "지구생활자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 즉 원주민, 저소득층, 기후 난민, 청년 세대 등을 지칭하며, 이들은 인종, 국경, 계층의 분할을 넘어 '하나의 지구'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연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④가 가장 적절합니다.

- ① '지구생활자'는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주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을 지칭합니다. 이는 라투르가 발전주의적 세계관을 견지하는 '근대인들'(환경 파괴의 주요 책임자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시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지구생활자'는 인종, 국경, 계층의 분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할을 넘어서 연대하는 존재입니다. 지문에서 명시적으로 "더 이상 인종, 국경, 계층의 분할로 나뉘지 않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③ '지구생활자'는 정부나 국제기구가 아니라 환경 파괴에 취약한 위치에 놓인 개인들을 지칭합니다. 지문에서 원주민, 저소득층, 기후 난민, 청년 세대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 ⑤ '지구생활자'는 경제 발전보다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사람

들로, 라투르는 이들을 발전주의적 세계관을 지닌 '근대인들'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3. 정답: ④

[해설] 이 문항은 지문과 <보기>를 연결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백과 라투르는 모두 환경 재난이 사회적 불평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윗글 첫 문단에서는 "환경 불평등은 환경적 위험과 혜택이 사회 내 특정 집단에게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현상으로, 인종, 계층, 국가, 세대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단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를 통해 "당시 피해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인종적, 계층적 불평등 구조를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라투르의 '지구생활자' 개념도 환경 파괴와 사회적 불평등의 연관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과 라투르는 모두 환경 재난이 사회적 불평등과 별개의 현상이라고 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① 백은 <보기>에서 "파국이 내포하고 있는 비판적 성격을 해방의 낙관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라투르는 윗글에서 "지금이 곧 종말적 사태라는 절박성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백이 라투르보다 환경 파괴의 낙관적 가능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백은 환경 위기를 '해방적 파국'으로, 라투르도 환경 위기를 사회적 변화의 계기로 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특히 라투르는 "21세기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환경 파괴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절박한 인식이 실천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③ <보기>에서 백의 '정확 작용'은 "파국에 대한 충격이 다시 새로운 인식과 성찰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윗글에서도 이를 "파국의 충격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기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부연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윗글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환경 보호와 인종 차별이라는 별개의 담론이 결합되면서, 홍수 위험을 환경적 불평등의 문제로 재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백이 말한 '정확 작용'의 예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4. 정답: ③

[해설] 이 문항은 지문에서 학습한 개념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윗글 일곱 번째 문단에서 "지구생활자 연대를 통한 환경 정의 실현 방안으로는 기후 소송, 풀뿌리 환경 운동, 국제적 환경 캠페인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는 "기후 난민들은 국제 환경단체의 지원을 받아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과 국가들을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생활자(기후 난민)들이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③이 가장 적절합니다.

- ① 윗글에서는 지구생활자 연대를 통해 환경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개별 국가의 자체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은 선진국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피해는 저개발국가 주민들이 주로 겪는 상황에서 개별 국가 대응만으로는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 ② 기후 난민 문제는 분배적 정의(환경 위험의 불균등한 분배)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와 인식 정의(문화적 정체성의 존중)와도 관련됩니다. 특히 <보기>에서 사미르 씨가 유럽 국가 입국이 거부된 것은 절차적·인식적 정의와도 연관됩니다.
- ④ 사미르 씨와 같은 기후 난민은 라투르가 말한 '지구생활자'에 해당합니다. 윗글에서 지구생활자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원주민, 저소득층, 기후 난민, 청년 세대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 ⑤ 기후 난민 문제는 국제적 차원의 환경 정의와 관련되며, 현재 세대의 온실가스 배출이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세대 간 환경 정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윗글 세 번째 문단에서 환경 정의 개념이 "최근에는 국가 간 그리고 세대 간 정의 문제까지 포괄하게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어렵다는 지문의 취지에 반합니다.